

회사정상화 향한 '진군'

노조 2004년 증·감자, 지역언론육성법시행에 총력키로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2004년을 '회사 정상화의 해' 로 삼고 증·감자, 지역언론육성법제정과 시행, 임금과 수당 현실화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일보 노조는 특히 비상대책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증·감자를 통한 새로운 경영진 영입에 전 조합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의 활동을 지원하며 자체적으로 조속한 증·감자를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법인 지역언론육성법의 국회법 통과를 위해 정치투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언론육성법제정은 특히 '조중동' 3개 메이저 신문사의 독주와 거기에 따른 민중상징조작을 막고,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지역분권을 앞당기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법안으로 대외투쟁의 1안으로 상정한 상태다.

특히, 총선이 있는 오는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차원에서 정치투쟁에 나서 언론개혁을 가로막는 수구 정치인에 대한 퇴출 등에도 적극 뛰어든 계획이다.

인천일보 노조는 또 편집국장 직선제, 격주 휴무 전면 실시, 노조가입 대상확대, 임금과 수당현실화 등 시내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편집국장 직선제의 경우 편집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필요하고 격주 휴무제의 경우 과도하고 불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또 노조가입대상을 확대해 많은 직원들이 노조활동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과 함께 발언권을 쥐 민주적 노조운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노조는 보고 있다.

아울러 임금과 수당의 현실화도 중요한 과제로 선정했다. 현 임금체계는 최저생활에도 못미치는 상황인데다, 수당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있는 것조차 유명무실하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찬홍 위원장은 "지난해는 11대 노조의 준비기이었다고 보면 되며 올해가 바로 우리 노조집행부가 본격적이고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조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해엔 사랑으로 한몸이 되자

2004년, 갑신년 태양이 떠올랐다. 여명의 일출을 바라보는 인천일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다. 그 안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열정이다. 우리의 눈 속엔 폭풍우 같은 현실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 직원들간의 사랑과 경영정상화가 이뤄져 보다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담겨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다. 그것을 쟁취하려는 열정이 우리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우리 노조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지혜롭게 잘도 헤쳐왔다. 내부적으론 더 이상 경쟁력도, 마인드도 없는 경영진을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게끔 했고, 대외적으론 언론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 지역언론육성법이란 개혁법안을 쟁취해 냈다.

처음 경영진이 손을 떼면 경영이 엉망이 되리란 일부의 우려는 기우가 됐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300%밖에 받지 못했던 상여금을 올해는 거의 다 받을 수 있었던 게 이를 증명한다. 이 돈은 어디서 빚을 얻어와 준 돈이 결코 아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벌어서 받은 돈이다. 이 하나의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지금은 떠나간 경영진이 얼마나 무능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노조는 또 비상대책위원회와 한 몸이 돼서 비대위의 일에 적극 참여해 왔다. 노조이기에 앞서 인천일보 식구임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노조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올 때까지 비대위에 참여해 회사의 중·감자 등 경영정상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마침, 지역언론육성지원법이 제정될 예정이어서 언론개혁이 앞당겨지고 근로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직원들 모두가 회사가 어려운 만큼 나부터 좀 더 열심히 뛰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어 2003년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나빠질 경우의 수는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인천일보의 침체는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면 된다. 이제 기쁨을 향유할 시간만 남은 것이다.

이따금 정체를 알 수 없는 음해세력의 어처구니 없는 음모가 인터넷상에 게재되고 있지만, 여기에 흔들리는 조합원은 아무도 없다. 또 흔들려서도 안된다.

인천일보 노동조합원들이여, 기쁨과 희망의 2004년을 서로 사랑하며 단단히 결속하자. 그리하여 언론개혁쟁취, 경영정상화의 길로 다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힘차게 달려나가자.

민실위, 위원보강 5인체제로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인천일보에 실린 기사내용을 분석, 비판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인천일보 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실위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회의를 갖고 기존 1인 간사체제에서 4명의 위원을 보강, 보다 심도있는 지면 분석과 비평을 통한 '참언론' 실천의 기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11월 2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 민실위 난을 확대해 네티즌과 독자들이 보다 손쉽게 민실위보고서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민실위는 매월 두차례의 모임을 갖고 그 달에 발행된 신문 지면을 분석, 잘못된 보도 내용과 참 언론에 역행한 사례를 지적, 노조 위원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민실위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특히 오프라인을 통한 보고서 작성시 의의성 문제와 함께 지면배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기사가 보도되는 즉시 홈페이지 민실위보고서에 비평기사를 실을 계획이다.

물론 민실위의 비평에 대한 반론도 여과없이 민실위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이다.

민실위는 앞으로 민실위 활동을 규정한 지부규약에 따라 민주적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인천일보는 물론 인천경기지역 언론들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민실위에서는 매달 우수 보도 기자와 편집 기자를 1명씩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기로 하고, 첫 번째로 '12월 우수 보도, 편집기자'로 정치부 박주성, 편집부 윤신욱기자를 선정 발표했다.

1인 1동아리 갖기

직원들에 인기 '짱'

조합원들은 물론 전 직원들이 학창시절의 낭만을 되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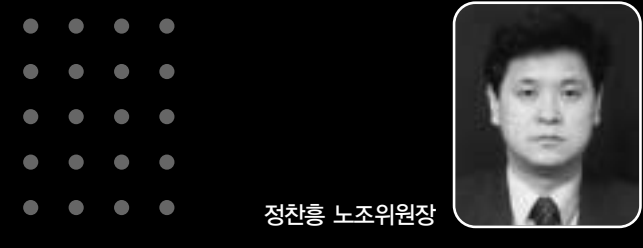
인천일보 노동조합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동아리 갖기' 운동에 나선 결과 다채로운 사내 동아리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 '1인 1동아리 갖기'는 전 직원이 자신의 취미를 살리고, 살가운 시간을 갖기 위한 '인천일보 전직원 하나되기' 운동으로 현재 사내에는 사진, 마라톤, 낚시, 풍물 동아리 등 4개 동아리에 약 40여명의 조합원이 활발히 참여중이다.

이들 동아리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취미활동은 물론 세상사는 이야기 회사얘기 등을 흥겹없이 나누며 일터에서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다.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앞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등산, 영화, 독서, 바둑 동아리 등 각 동아리들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조는 특히 이들 동아리들에 대해선 장소제공과 활동비 등을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일보 직원이라면 조합원, 비조합원 관계없이 누구나 동아리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으며 동아리를 결성한 그룹은 노동조합에 인원, 활동내용 등을 알려주면 노조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을!



정찬홍 노조위원장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03년 묵은 한해에는 유난히도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회사를 지배해 왔던 신화수 전 사장이 노사협상 도중 돌연 회사를 떠났고 그 밑에서 2인자를 지임했던 최창민 전 이사는 '징계해고' 처분을 받고 그가 공언했던 대로 신 전 사장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신 전 사장과의 투쟁이 시작됐던 지난 3월로 되돌아가 봅시다.

지금은 기억조차 희미해졌지만 당시 발행됐던 노보는 신 전 사장 운영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는 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으면 못준다', '벌어서 가져가라' 식의 배째라 경영에다 '싫으면 떠나라', '책임 같은 건 안져', '내 돈은 못낸다' 식의 무데보 경영이 판을 쳤습니다.

급기야 신 전 사장의 하수인들은 구조조정을 서슴없이 자행해 동료, 선후배를 회사 밖으로 내 쫓았고 노사간 협약은 예외없이 휴지 조각으로 버려졌습니다.

이 덕에 그들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자기 뺏속을 챙겼고 승진 년한을 정해 놓은 사규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3년여만에 7-8계단 씩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상식 밖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회사내 온갖 회계서류는 어김없이 조작됐습니다.

신 전 사장이 '투명, 공개경영'이라는 헛구호를 외치고 다니는 순간에도 경영수지보고서, 예금대장 등 회사내 거의 모든 회계관련 서류는 단 하루도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공금을 횡령하는 것도 모자라 비자금 통장을 만들고 별단예금 통장을 개설해 회사 돈을 숨겨놓기도 했습니다.

주주가 증자한 돈을 몇 개월씩 숨겨 놓은 채 증자를 미루는가 하면 그 돈을 여기저기로 분산시키며 회계서류를 조작하는 등 그들이 자행한 불법, 탈법행위는 이루 손으로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이 회사를 떠난 뒤에도 사내 극소수인원들은 노조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음해하는 짜라시를 내붙이고 거짓 메일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 갖은 못된 행동들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떨쳐 버려야 할 어두운 기억을 새삼 떠올리는 것은 우리 내부가 사소한 이견으로 인해 증감자, 내부개혁 등 산적한 과제에 쏟아야 할 정열을 불필요하게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최창민 전 이사의 해명을 들어 보자는 동정론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소명기회를 거부한 그의 변명을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들어 주자는 애깁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자신의 저지른 일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그는 공공횡령과 비자금통장 개설 등은 인정하면서도 공식적 소명은 기피한 채 몇몇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억

울한 양 읊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서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숨죽여야 했던 힘없는 우리 동료들의 억울한 사연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직원 부럽지 않은 돈을 받아가며 호가호위하던 그의 변명을 시간을 내서 들어야 한다면 힘없고 말 못하는 우리의 동료들의 억울한 사연은 책으로도 만들어서 만천하에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또다른 사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너무 빨리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신 전 사장이 최창민 전 이사에게 전권을 넘기고 떠난 뒤에 최 전 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비대위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서두는 바람에 회사 안팎이 소란스러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만약 최 전 이사가 회사를 계속 운영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비춰보면 정상운영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 전 이사는 신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첫 임금지급일이 돌아오자, 비대위원과 본부장, 노조위원장을 불러 모아 놓고 "자금이 달려 미지급 대금과 임금을 동시에 지불하기가 힘드니 어느 쪽이든 미뤄야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면 임금체불사태가 벌어져 직원들의 고통은 가중됐을 것이고 최 전 이사와 그의 무리들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극단의 사태에다 노조와해공작과 노조를 지켜내려는 힘겨운 노력들이 뒤엉켜 회사는 최악의 분열위기로 내 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노조집행부의 포용력을 운운하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리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조직입니다.

누가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포용하는 조직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모두의 조직이며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 함께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혹여 모든 조합원이 함께 나가는 큰 물줄기에서 따로 떨어져 '쉽게 합류하기도 어렵고 계속 따로 떨어져 있기도 불안하다'면 한시바삐 노조가 가는 길에 합류하십시오.

- 우리에게 정말 모두를 꺼안고 갈 커다란 포용력이 있다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우리 동료들에게, '진실된 믿음'을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궁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신 전 사장과 투쟁과 지금도 계속되는 내부 프락치들과 싸우느라 다양한 내부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집행부가 반성할 부분일 것입니다.

2004년 새해 벽두는 인천일보의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린 감자의 성사여부가 년초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고 여기에서 감자가 거부될 경우 우리는 생존권 수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두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신 전 사장은 여전히 자신의 경영상과 오를 인정하지 않고 감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헤치고 인천일보의 미래를 반석위에 올려 놓으려면 이제라도 내부의 사소한 이견을 불식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보듬어 주는 따뜻한 배려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개월동안 작은 실수와 오류속에서도 모든 조합원이 힘을 합쳐 대과없이 노조를 지켜온 것처럼 그 성공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흔들림없는 강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 나갑시다.

지난해 노조 이렇게 걸어왔다

부조리한 경영 개고 경영정상화 위한 깃발올려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날을 보며 힘차게 달려 여기에 왔지. 가야할 길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 온 길을 돌아보네~’. 몇 년 전 자주 흥얼거렸던 유행가의 한 구절이 새삼스레 구구절절하게 와 닿는 요즘입니다.

수개월의 공전 끝에 11대 노동조합이 출범한 지도 벌써 반년이란 시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003년 임금협상의 결렬과 함께 신화수 전 사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이 불명예스럽게 퇴장하면서 꾸러진 비상대책위원회의 등장과 증·감자를 위한 활동의 전개가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힐 것입니다. 밖으로는 신문시장의 거대한 판도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언론육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중에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인물중심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개혁의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사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조합원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는 단체협상안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에 있기도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조합원 가입 반려 및 부당노동행위 등 임단협 전 사측과의 일합에서 부터 조합원 엠터, 임단협 개시 및 결렬, 신화수 전 사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의 퇴진,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에 이은 증·감자 추진 활동 및 내부 개혁 시동이 그동안의 주요 사건이었습니다. 이 외중에 서울 상경 투쟁으로 시작, 한나라당 인천시지부 항의방문, 언론개혁을 위한 각종 활동 참여, 위원장의 경인 연노협 의장 취임 및 지역 시민·노동단체들과의 연계 확보 등 외연 확대를 위한 작업 역시 동반됐습니다. 아울러 노조 후원의 밤 행사 주최와 동아리 활동 활성화 등도 빠질 수 없는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위주로 지난 시간을 일별해 봤는데, 그러면 이같은 상황전개가 어떻게 이뤄져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출범 당시의 노조의 내부 상황은 말 그대로 지리멸렬하고 무기력했던 모습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존재감조차 없는 잊혀진 조직으로 비쳐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당시의 와해됐던 조직을 추슬러 정상화하는 동시에 임단협 투쟁 승리와 지역언론육성지원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심어줘야만 하는 시급한 두 가지 현안을 모두 쟁취해 내야만 하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구성원들의 역량을 모아내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고, 조합은 구체적으로 사측과의 힘겨루기를 통한 조합원의 정체성 환기 및 모꼬지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한 결속력 강화 등에 주력했습니다. 뜻밖에도 사측 역시 우리를 잘 도와줘(?),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되풀이하는 등 자충수를 두면서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토양을 제공해 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단협 전 조직 정비와 한창 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던 무렵 외연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는 출범 당시 조합의 역량을 감안할 때 매우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1대 집행부의 면면이 회사 전체 조직내에서 중간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받아 안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의원회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조합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합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의지함으로써 가능했다는 게 저희들의 자평입니다. 비대위의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돼 온 최근들어 사내에 난데없는 ‘빠라’가 돌아다니는 등 아직 전 경영진의 잔재가 남아있고, 내부적인 이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는 모두의 일보 전진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사측의 악의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노조 와해공작, 무책임한 행태 등을 딛고 일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미흡하겠지만 조합은 저 유명한 경구처럼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합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한 우리 인천일보노동조합은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의 끈을 놓지 않고 지지와 성원, 그리고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조집행부>

지역언론육성법의

취지 및 법 제정전망

1. 취지

소수의 거대중앙언론이 언론계를 장악하고 대부분의 지역신문은 적자경영 상태에서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사의 조건을 명문화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신문 육성을 제도화하여 지역신문이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발전을 유도하고 여론형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진행상황

현재 여야가 각각 유사한 법률 3개를 국회에 제출해 해당 상임위원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심의를 벌이고 있음.

- 1) 법안제출** _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6명은 지난해 9월 22일 지원조건을 단순하게 규정한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 이어 10월 19일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김성호 의원 등 여야 4당 국회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제출. 또한 11월13일에는 당초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 중 지원대상에서 빠진 주간지 지원방안을 담은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을 목요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
- 2) 심의과정** _ 국회 문화관광위는 11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제출된 법안에 대해 병합심의에 들어감. 11월 24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회의실에서 이 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언론재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당초 11월 27일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예정했으나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공청회에서 지원조건과 관련한 자료를 다수 요청해 12월로 최종 결정을 연기.
- 3) 향후 심의일정** _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지난해 12월 들어 한나라당의 국회등원 거부, 장외 투쟁 선언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올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다만 여야 의원들의 긍정적인 입장표명에 비추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쟁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각각 지원조건, 지원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 1) 지원조건** _ 한나라당은 발행부수공사(ABC 공사)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해 자칫 사이비 언론을 양산할 가능성이 제기됨.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배주주나 회사대표가 신문사운영과 관련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노사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편집자율권을 보장하는 편집규약을 제정, 시행할 것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문사 종사자의 복리증진과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할 것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문윤리강령 등 관련 규약을 준수할 것 등 건전한 언론과 사이비언론을 가리는 장치가 구체적으로 규정.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동의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 2) 지원기준** _ 한나라당은 광역단체 지역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로 한정된 반면 열린우리당은 종합일간지에다 주간지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그러나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 등이 주간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별도로 제출해 이 문제도 별다른 이견없이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

4. 전망

여야는 각당이 제출한 법안 중 쟁점사항인 지원조건, 기준 등에 대해 공청회에서 상당부분 이견을 조정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이변에 없는 한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 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원은 법안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과 지원회사에 대한 심사 등의 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지원방법과 규모에 대한 예측

지원방법과 규모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는 지원방법은 기금을 조성하거나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원규모는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충분한 지원이 주어져야 한다는 정치권 의견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반대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언론은 시장에서 자동퇴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다소 엇갈림. 하지만 건전하고 개혁적인 언론사로 충분히 인정받을 경우 최소 경영이 유지되는 선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 현재 거론 중인 구체적 지원방식은 ▲소외계층 구독지원 ▲연합통신 무상제공 ▲각종 세금감면 ▲국가기관 광고 배정 ▲대기업광고 할당 등과 함께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6. 인천일보가 해결해야 할 과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객관적인 건전성과 개혁성이 확보돼야 한다. 특히 최근 우선지원이라는 규정이 법안에 새로 도입됨에 따라 각 언론사가 외형적 개혁조치에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인천일보도 이에 따른 개혁적 조치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일보는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 부분은 향후 감사와 증자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소유와 경영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빛나는 노조활동 계속 기대한다

일 마전 올해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경제상황을 대표하는 한자성어로 우왕좌왕(右往左往)이 선정됐다고 한다. 인천일보의 경우도 이 4자성어 전부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올 한해는 지난 88년 창사이래 최대의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장이 임기 도중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회사를 떠난 이후 수 개월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외부의 시각은 인천·경기지역을 대표하는 정론지 인천일보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많은 듯하다. 그러나 이는 인천일보의 재도약을 위해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진통에 불과할 뿐, 이는 단지 기우로 끝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같은 인식은 올들어 출범한 11대 인천일보 노동조합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노조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노조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출범이후 그 동안 보여왔던 활동사항들을 살펴보면 가능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인천일보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전임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벌여왔던 어찌보면 몸부림에 가까운 노력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조합원 모두는 노조집행부의 인천일보를 이전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사항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04년은 갑신년(甲申年). 구한말 봉건적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김옥균 등 개화사상가들을 중심으로 벌여졌던 갑신정변이 일어난지 120년이 되는 해다.

인천일보의 현재 상황도 구습을 과감히 떨쳐내는 환골탈태를 통해 동북아 대표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혁의 과정이며 신평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4년은 표류중(?)인 인천일보호가 중심을 잡고 순항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인 만큼 이제 임·직원들 상호간의 반목과 질서에서 벗어나 인화단결로 뭉쳐 조속한 회사정상화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노조가 앞장서 조타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송영규 조합원>

집행부는 더 강하게, 조합원은 더 적극적으로!

현 노조의 활동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개월 동안 진행돼온 임금 협상 및 사장의 퇴진 등 현재의 비대위 구성까지 여러면에서 활동이 많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와서 보면 별 득이 없는 활동이 아니었다. 비대위 활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난 솔직히 의심스럽다. 10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없는 모습 속에서 나는 예전 인천일보 노조로 돌아가지는 태도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비대위로 진행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 증·감자 문제는 언제 풀릴 것이며, 새로운 사장은 언제쯤 올 것인지 한숨만 나온다. 올 해 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무성할 뿐 아무런 문제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문서 사건이나 누구 누구의 비리가 이렇다 저렇다하는 소문들이 과연 왜 벌어지고 있는 지 고민 갖든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노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전에 조합원들 모두 자기 자신의 노조활동 의지가 얼마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자.

나도 노조원이지만 그렇게 큰 관심은 보인 적이 없는 듯 하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길 바라며...

인천일보 노조원 파이팅! 집행부 파이팅! <윤태병 조합원>



갑신년을 푹푹 뭉쳐서 헤쳐나가자

너 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2003년 계미년의 해가 저물었다. 한 해 동안 인천일보는 임단협 진통과 함께 사장 퇴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직원 한 명 한 명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내부적으로 서로 믿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2004년에 새로운 희망을 담아야만 한다. 장밋빛 미래를 꿈꿔야만 한다. 그 래야 개개인이 버텨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은 새로운 사장의 영입, 지역언론육성법이라는 커다란 희망으로 열리는 해다. 물론 이 역시 불분명하지만 우리에게 낙관적인 생각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암담할 것이다. 우리는 더더욱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다. 우리의 미래를 끌려가듯 방관할 수도 없다. 한편으로 비대위로, 다른 한편으로 노조로 힘을 실어주어야만 불안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서로간의 의심을 털고 작은 일에 흥분하지 않으면서 일정대로 착착 진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비대위를 믿는다. 비대위는 따로 떨어져 있는것이 아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손을 내밀라. 우리는 언제든지 손을 마주잡고 같이 나갈 각오가 되어있다.

우리는 노조를 믿는다. 그동안 각종 구설을 참고 견디며, 대응하며 보다 나은 인천일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전 조합원들은 알고 있다. 음해의 소리가 있더라도 보다 많은 조합원들을 믿으라. 무엇이 두려운가. 두려운 것은 오직 하나 전 조합원의 목소리뿐이다. 전 조합원의 소리를 듣고 밀고 나가라. 그리고 하나하나 대응하지 말라. 흔들릴 필요 없는 목소리는 조합원도 다 알고 있으며, 대응하지 않아도 될 사안에는 대응하지 말라.

우리가 믿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인천일보가 진정한 인천의 대표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보다 나은 대우를 바라고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뭉칠 수밖에 없으며 아니 뭉쳐야만 하는 것이다.

2004년을 믿음으로 열자. 믿음을 통해 뭉치자. 뭉쳐서 헤쳐나가자. 인천일보 파이팅! <심동렬 조합원>

보라사련기쁨은 집행부 모습 보여주기

노 조의 근본 설립취지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조합원의 권익증진이다.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사내·외적인 측면에서 보 고자 하면 내적으로 권익보호가 될 것이고 외적으로 근로자로서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주는 일 일깨다. 이것이 노조의 존재가치다.

인천일보는 전임 경영진의 퇴진에 이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된 지가 벌써 2개월째가 넘는다. 당시 비상대책위 출범과정에서 조합원간 첨예한 찬·반논쟁을 거쳐 노조가 비대위에 참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 비춰 노조의 운영 가운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실망'이란 비판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11대 출범에 누구보다 기대가 컸음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 노조 홈페이지에 한 지역 인터넷신문의 기사가 그대로 퍼올려진 것에 대한 부분이다.

노조 홈페이지에 실린 이 인터넷신문의 기사는 '골프로 돈벌이 나선 지역언론'이란 제하로 최근 본보가 수익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중국 골프교실 운영'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물론 사회의 공гийн 언론사에도 경제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고가의 골프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큰 돈이 된 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노조에 묻고 싶다. 비대위 체제하에서의 사업 결정은 사실상 노조가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업심의 단계에서 충분히 제동을 걸 수 있는 사안 아닌가.

그런데도 마치 본보가 비난의 대상이 된 인터넷신문 기사를 그대로 노조 홈페이지에 전제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인터넷신문의 미디어 비평기능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최소한의 수준도 갖추지 못한 인터넷신문에 본보를 비난한 기사가 게재됐다고 해서 노조의 견제기능만을 내세워 검증절차 없이 노조홈페이지에 퍼올린 것은 아닌가.

노조의 순수성과 견제기능은 충분히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사려깊게 결정하길 바란다. <익명의 조합원>

아두 2003년!

인천일보 노동조합활동을 사진으로 되돌아 본다.
지난 한 해는 인천일보 노동조합에게는
시련과 희망이 교차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8월 숨막히게 진행되던 임금단체
협상은 신화수 사장의 퇴진으로 그 끝을
맺었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제4차 협상당시 모습>



급박하게 진행되던 임금협상과정에서 갑작스런 신화수 사
장의 퇴진은 조합원 모두에게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안겨
주었다. <사진은 지난 9월 3일 임단협 결과와 사장 퇴진을
놓고 총회를 가는 조합원의 모습>

노동 조합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인천일보 노동조합 후원의 밤'은 노조의 힘을
대외적으로 알리기에 충분했다. <사진은 지난 10
월 24일 인천일보 노동조합 후원의 밤>



제 11대 인천일보 노동 조합 출범을 힘
차게 알리는 노동조합 단합대회에서 조
합원들은 미래를 보았다. <사진은 지난
5월 28일 충남 태안 청포대에서 단결을
외치는 조합원들의 모습>



올해 노조의 또 다른 모습은 동아리 활성화다.
<사진은 지난 11월 사진동아리 '줌'이 강원도 동해시
추암을 찾아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지난해 11월 탄생한
귀여운 인천일보 노동조합 캐릭터
'단결' 아~